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CARRYING ALBERT HOME

가제 : 앨버트와 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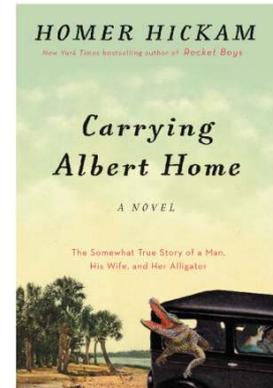
저자 : Homer Hickam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5년 10월 13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로켓보이』의 작가가 부모님에게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완성한 악어와 젊은 부부의 유쾌한 동  
거

엘시와 호머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파릇파릇한 시절, 사랑에 빠졌다. 사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공황이 코 앞에 닥쳤을 때 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호머가 엘시에게 청혼을 했지만, 엘시는 거절하고 돈 많은 삼촌이 사는 올랜도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호머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탄전으로 향했다.

올랜도에 도착해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지내던 엘시는 댄스 배우로 활동하던 버디 엠슨을 만나 아주 짧지만 강렬한 사랑에 빠진다. 버디가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가 되기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버디는 뉴욕으로 떠나버리고, 그와 평생을 함께 하려던 엘시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상처 입은 엘시는 결국 올랜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시 호머와 만나 이번에는 결혼에 골인한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에게 상상치도 못한 선물이 도착한다. 뉴욕으로 떠난 버디가, 결혼 선물이랍시고 거대한 악어를 보낸 것이다.

광부의 아내가 되어 특별할 것 없는 결혼 생활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엘시는, ‘앨버트’라는 이름의 악어 때문에 버디와 함께 하던, 올랜도에서의 자유분방했던 시간들을 지우지 못한다. 앨버트는 달리 돌 곳도 없어 집에 하나 밖에 없는 욕조에 겨우 키웠지만 날이 갈수록 덩치가 점점 커져가고, 급기야 욕실에 갈 때마다 앨버트가 바지를 붙잡는 통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호머는 엘시에게 최후 통첩을 하기에 이른다. “나야 저 악어야? 선택해!” 엘시는 고심 끝에 앨버트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하지만, 방법은 하나 밖에 없었다. 바로 앨버트의 고향인 올랜도로 보내주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호머와 엘시는 뷰익 뒷좌석에 악어를 싣고 1,200 킬로미터가 넘는 기나긴 도로 여행을 시작한다.

### **대공황을 배경으로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한 남녀, 애완 악어를 통해 찾아가는 행복**

1930년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앨버트를 태우고 먼 여정에 나선 두 사람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과 만나면서 온갖 모험을 함께 하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도사리고 있던 셋의 관계 속에서 전에는 알지 못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참 잘 어울리는 이 셋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겉으로 보기에 남편 호머에게 무심하고 가사일에도 별로 관심 없어 충실한 결혼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엘시의 모습이 때로는 무정하고 알밋게 그려지지만, 호머는 긴 여행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이 엘시의 전부가 아님을 서서히 알게 된다. 불안하고 빼격대는 초보 부부지만, 행복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나름의 방식대로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큰 감동을 준다. 또 한 명의 주연, 앨버트는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작가가 앨버트의 행동과 소리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는 그 존재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배꼽 잡는 우스운 상황들,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우러지고, 색다른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소설이다. 오는 10월에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11개 언어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이다.

### **<저자 소개>**

호머 히컴(Homer Hickam)은 광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스킨스쿠버 강사, 고생물학자, NASA 엔지니어를 거쳐 작가가 되었다. 영화 '옥토버 스카이(October Sky)'의 원작 소설 『로켓보이』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수상 도서를 발표했다.

제목 : KRUSO  
가제 : 크루소  
저자 : Lutz Seiler  
출판사: Clothbound  
발행일: 2014년 (독일어)  
분량 : 484 페이지  
장르 : 소설



**독일의 서정시인 루츠 세일러가 완성한 첫 번째 소설, 20만 부 이상 판매된 ‘독일 도서상’ 수상작**  
1989년 여름, 독일 문학을 공부하던 대학생 에드가 벤들러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고 큰 충격에 빠진다. 여자친구가 트램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키우던 고양이마저 잃고, 마음 둘 곳을 잃은 에드는 오랜 세월 떠난 적이 없는 동독을 떠나 발트해에 자리한 히덴제 섬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다. 히피, 이상주의자들을 비롯해 동독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서독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중간 정착지로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한 수수께끼의 섬 히덴제. 에드는 낡은 엽서에서 우연히 그 섬의 모습을 보고 그곳을 휴가지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섬에 도착한 에드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고 일하면서 머물 곳을 찾아 다닌다. 마침내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히덴제 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클라우스너’. 설거지 담당으로 마침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한 에드는 조용히 일만 하며 혼자 지내고 싶었지만, 임시 일꾼들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 알렉산더 크루소위츠라는 남자와 만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크루소’라 불리는 그는 카리스마 넘치고 한편으로는 어딘가 은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풍기는 인물로, 서독으로 가기 위해 동독을 몰래 빠져 나와 히덴제 섬으로 오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방황하는 그들을 모아, 내면의 완벽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에드는 크루소와 의외의 공통점들을 발견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다. 시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크루소의 여동생 소냐도 발트해를 수영으로 건너 서독으로 가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감행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고, 서커스 단원이던 크루소의 어머니는 높은 천장에 매달린 줄 위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은 에드와 크루소를 더 없이 절친한 관계로 잇는 끈이 되었다. 동독에서 떠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히덴제 섬으로 온 사람들, 일명 ‘난파선’으로 불리는 그들은 서독으로 무모한 탈출을 감행하다 부지불식간에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여동생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은 크루소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독일 통일 직전, 북부의 신비로운 섬 히덴제에서 만난 한 남자와 젊은 문학도의 묘한 인연**

시간이 1990년을 향해 흘러가면서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하자 ‘난파선’들과 에드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이제 히덴제 섬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리하여 섬에 찾아왔던 이들은 크루소의 곁을 하나 둘 떠난다. 급변하는 현실,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친 히덴제 섬에서 단순한 우정이라고 하기엔 사랑만큼 짙고 깊었던 에드와 크루소의 관계에도 어쩔 수 없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 불안정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당시 실제로 발트해를 건너려다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건디기 힘든 혼란을 겪던 청년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시처럼 묘사한 히덴제 섬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소설이다. 유머와 서스펜스,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다. 2014년 9월에 독일어로 첫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20만부가 판매됐으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불가리아, 중국을 포함해 총 19개국에 판권 계약 되었다.

**<저자 소개>**

루트 세일러(Lutz Seiler)는 동시대 독일 서정 시인 중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힌다. 1997년부터 ‘피터 후헬 박물관’의 문학 감독을 맡고 있다. ‘Ingeborg Bachmann Prize’, ‘the Bremen Prize for Literature’, ‘the Fontane Prize’, ‘Uwe-Johnson-Prize’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제목 : BEACON 23 (Part 1~5)  
가제 : 23번 등대  
저자 : Hugh Howey  
출판사: Broad Reach Publishing  
장르 : 소설



때는 23세기, 은하수를 빛의 속도로 내달리는 우주선들과 그 사이에 설치된 유인 등대에 홀로 근무하는 이름 모를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다섯 편의 강렬한 단편으로 완성됐다. 4편까지 발매된 후 전자 책 일일 다운로드 횟수 1,000건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SF 소설이다.

### 1편. 작은 소음들(Little Noises)

분량: 20 페이지 / 발행일: 2015년 6월 8일

우주 한복판에서 우주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책임지는 등대가 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남성, 여성들이 이곳을 찾아와 일은 고되고 보상은 보잘것없는 등대지기가 되었다. 뭔가 잘못되기 전까지, 우주선이 경로를 잃고 조난당하기 전까지 등대지기의 임무는 계속된다. 23세기가 되자 우주 등대는 우주 공간 바깥쪽으로 자리를 옮겨 설치됐다. 여러 등대끼리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쉽사리 붕괴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됐다고들 이야기한다. 그 중 23번 등대에서 근무하는 한 남자. 그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서서히 미쳐갈 지경이다. ‘빹-’, ‘깍-’하는 아무 의미 없는 기계음들은 일단 시작되면 원인을 찾기 전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작게 들리던 소음이 한층 날카롭게 울리더니 갑자기 모든 경고음이 뚝 끊기고 시스템이 꺼져버린다. 승객을 태운 우주선이 23번 등대 앞을 무서운 속도로 지나치기 직전, 남자가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 밖에 없다.

### 2편. 애완동물 돌멩이 (Pet Rocks)

분량: 29 페이지 / 발행일: 2015년 7월 5일

우주 광석과 여섯 명의 사람을 싣고 가던 화물 우주선이 소행성 밀집지역에서 결국 충돌 사고를 당하고 23번 등대지기의 눈 앞에서 사라진 지 일주일 째. 사고의 충격과 우주선의 잔해가 등

대로 날아와 목숨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여 남자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한다. 급기야 바이오 스캐너는 저 멀리 우주선의 잔해가 흩어진 쪽에서 생명의 징후가 있다고 알려진 상황. NASA 정책에 따라, 그 생체 신호를 확인한 이상 그쪽으로 가서 살펴보는 것도 등대 지기의 임무다. 거대한 우주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뭔가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남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가움과 함께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마침내 조사에 나선 남자. 그곳에서 그는 보고도 믿기 힘든 존재를 발견한다.

### 3편. 포상금(Bounty)

분량: 38 페이지 / 발행일: 2015년 7월 19일

우주 제 8구역의 가장자리 한 등대에서 일하는 남자. 개도 고양이도 아닌 묘한 애완동물 ‘크리켓’과 함께 지내게 된 우주 생활에 힘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옛 연인의 등장, 그녀와의 비극적인 결말.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남자의 운명은 기로에 선다.

### 4편. 동료(Company)

분량: 42 페이지 / 발행일: 2015년 7월 26일

23번 등대지기 불과 1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지구의 본부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고, 쓸모 없는 등대는 없앨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는다. 몇 달 전 화물 우주선 사고를 겪은 그는 자리가 위태로워졌음을 깨닫지만, 사람과의 대화가 절실했기에 일단 그곳 등대지기를 만나보기로 결심한다. 크리켓과 함께 찾아간 그 등대의 근무자는 뜻밖에도 아름다운 여성. 그런데 클레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군인 출신으로, 남자가 과거 파일럿으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붙여진 별명까지 알고 있다. 둘은 자연스럽게 점점 가까워진다.

### 5편. 방문자(Vis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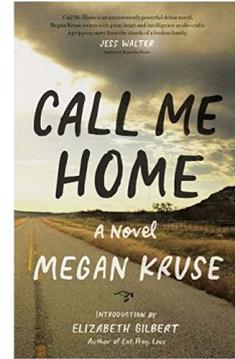
분량: 34 페이지 / 발행일: 2015년 8월 8일

클레어를 만나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된 23번 등대지기. 그러나 은하수 전역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던 전쟁은 결국 그들이 머문 제 8구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남자와 클레어, 크리켓은 모두 새로운 지도자 라이프의 포로가 된다. 등대 근무는 계속되고, 어느 날 남자를 찾아온 낯선 방문자는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알려준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임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그 일을 과연 남자는 해낼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휴 하위(Hugh Howey)는 여러 상을 수상한 『Molly Fyde』와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울(WOOL)』 시리즈를 발표했다. 『WOOL』 시리즈는 2012년 ‘킨들 도서 리뷰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40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20세기 폭스 사에서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다.

제목 : CALL ME HOME  
가제 : 집을 찾아서  
저자 : Megan Kruse  
출판사: Hawthorne Books  
발행일: 2015년 3월 3일  
분량 : 292 페이지  
장르 : 소설



### 더 나은 인생을 찾기 위한 선택이 좌절과 폭력으로 되돌아올 때, 다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순진하고 부끄러움 많은 십대 소녀였던 에이미 머릭은 1990년,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퍼와 제니퍼의 남자친구 샘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가서 게리 홀랜드와 만나게 된다. 금새 게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에이미. 게리는 에이미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잔뜩 바람을 넣고, 사는 곳도 집도 늘 지긋지긋해하던 에이미는 그 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자마자 몇 번 만나지도 않은 게리의 손을 덥석 잡고 고향을 떠나버린다.

워싱턴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5 에이커의 땅과 농장을 구입하고 정착한 두 사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2년 뒤 아들 잭슨이 태어나고, 다시 5년 뒤 예쁜 딸 리디아도 태어났다. 게리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된 것은, 리디아가 태어난 직후부터였다. 계속해서 일자리를 잃고, 오랜 세월 소원했던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게리는 술을 퍼 마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에이미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폭행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로서는 상상도 못 했던 모습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꺾꺾 참으며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게리와 그의 갈등이 유난히 극에 치달은 순간 그의 손에 창문 밖으로 내던져지고 이제는 그를 영원히 떠나는 것만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는다. 때는 2010년, 잭슨이 열여덟, 리디아가 열두 살이던 해였다.

그 동안 남편의 폭력을 피해 여러 번 집을 나갔던 에이미는 그 때마다 발각되어 다시 집으로 끌려가야 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겨우 싸구려 모텔에 숨었지만,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괴물 같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너무나 원하는 모순에 괴로워하던 아들 잭슨이, 에이미와 리디아가 숨은 모텔을 알려주곤 한다. 결국 다시 끌려갔지만, 에이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디아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만 했다. 잭슨을 게리에게 남겨둔 채 딸만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긋지긋한 삶, 남편의 폭력,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이 된 엄마와 아이들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여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온 에이미는 자신과 리디아의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러나 두고 온 잭슨에 대한 염려와 사랑은 한 순간도 놓을 수 없었다. 사춘기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이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잭슨은 그 사실이 들끓나면 난폭한 아버지의 분노만 살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나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게 이로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엄마와 여동생이 자신을 두고 달아나버린 후, 잭슨도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랜디와 함께 집을 떠난다. 포틀랜드에서 거리를 전전하며 지내던 잭슨은 한 건설 회사에 겨우 일자리를 찾고, 현장 감독인 돈과 처음 만난다. 이미 아내가 있던 돈은 잭슨을 보자마자 그에게 흠뻑 빠져버리고, 잭슨과 돈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다. 잭슨에게는 돈과 나누는 뜨거운 열정이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잊는 위로가 되었다. 돈은 아내를 떠날 생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잭슨을 놓지 않으려 하지만, 그가 절대 아내를 버리지 않으리란 사실을 깨달은 잭슨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 먹는다. 랜디의 도움으로 엄마와 여동생을 찾아 나선 잭슨. 과연 세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에이미, 리디아, 잭슨 세 사람의 시선과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는 가정 폭력으로 망가진 삶, 두려움에 사로잡힌 억눌린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각자의 고투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메건 크루즈(Megan Kruse)는 오벌린 컬리지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몬타나 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여러 간행물에 글이 소개되고, 단편 『Dollywood』는 2011년 'Geraldine Brooks'가 펴낸 '미국 최고의 단편 100선'에 포함됐다. 에세이집 『Ballads』로 2007년 '애니 딜러드 상(Annie Dillard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 NON-FICTION

제목 : BREAKING ROCKEFELLER

가제 : 록펠러를 무너뜨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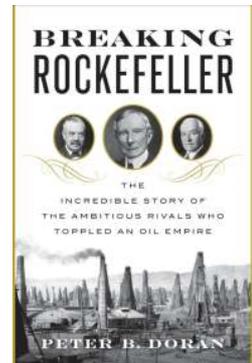
저자 : Peter Doran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

장르 : 경제



### **석유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 세계 최대 석유 부호 록펠러의 독점을 해체시킨 두 남자의 이야기**

원유를 직접 보면 만지거나 냄새 맡고, 맛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원유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석유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일수록 얻기 힘든 물질이기 때문에 석유를 지배하고 싶은 강대국들에게는 늘 방대한 거리와 지리적 요건, 위험을 모두 감수할 기술과 탐욕이 따라다닌다. 특히 21세기 들어 러시아가 에너지를 독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내세워 석유가 유럽 대륙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방어하면서 석유는 더욱 치열하게 획득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은 고대 무역 경로를 따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위험 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카스피 해 서쪽으로 가늘고 길게 꼬불꼬불 이어지는 길을 따라 이어지다가 해발 2,750여 킬로미터 높이의 카프카스 산맥을 지나고,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 고대 실크 로드였던 제이한 강을 따라 마침내 지중해 남부 해안에 도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송유관은 막대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실현되지 못하다가 2005년 마침내 역사적인 개통 일을 맞이했다. 그러나 석유의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굵직한 갈등과 문제들은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21세기가 시작되던 무렵, 러시아만큼이나 석유를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독점하려는 경쟁자가 나타났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히는 존 D. 록펠러와 그가 세운 스탠포드 오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다른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석유 시장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지배하며 미국 정부마저 선뜻 건드리지 못하던 거대한 '아나콘다' 스탠다드 오일에는 패배나 실패란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 무역업자 마커스 사무엘 주니어와 타협이라곤 일절 용납하지 않는 사업가 헨리 디터딩이 손을 맞잡고 '로열 더치 쉘'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자는 영국에서 한낱 외부인에 불과하다가 영국의 귀족 신분까지 오른 사무엘과 미국에 성큼

발을 들이고 록펠러의 석유 독점 체제를 붕괴시킨 디터딩이 걸어난 놀라운 발자취를 따라가며 석유를 둘러싼 야망과 탐욕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던 20세기 석유 시장을 무대로 저자는 이스트 런던의 거칠고 혼란스럽던 거리 곳곳부터 전제 군주제가 서서히 몰락하던 러시아, 영국 의회의 한복판,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독자들을 안내하며 사무엘과 디터딩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대부호를 이기고 석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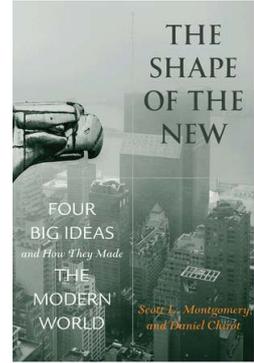
<목차>

- 1장. 브로드웨이의 왕
  - 2장. 하운즈디츠의 상인
  - 3장. 내부인
  - 4장. 설명이 불가능한 파렴치한
  - 5장. 있을 수 없는 일
  - 6장. 육식하는 달팽이
  - 7장. 왕관
  - 8장. 숨겨진 지도
  - 9장. 오점을 가진 기사
  - 10장. 세기의 거래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피터 B. 도란(Peter B. Doran)은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워싱턴 ‘유럽정책분석센터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의 연구 책임자로 아이튠스에서 ‘석유의 역사’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외교정책>, <아메리칸 스펙테이터> 등 다양한 간행물에 국제정세와 국가 안보에 관한 글을 다수 게재하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방송 매체에서 분석과 의견을 밝혀 왔다.

제목 : THE SHAPE OF THE NEW  
가제 : 새로운 생각의 형성  
저자 : Scott L. Montgomery, Daniel Chirot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년 5월 26일  
분량 : 512 페이지  
장르 : 인문



### 사회와 역사를 바꾼 네 가지 아이디어 ‘자유, 평등, 진화, 민주주의’, 그 의미와 사회 변화의 과정

현대 사회는 ‘생각’을 재료로 삼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우리는 주요 사상가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토대로 마련된 각종 제도와 정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생각들은 맨 처음 세상에 처음 알려진 당시만 해도 아주 독창적이고 대담하다는 평가와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일, 심지어 위험한 생각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묵살된 경우가 많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지금 보고 느끼는 사회가 뿌리를 확실히 내렸다고 확신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과 견해를 접하면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싹 바꿔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자유, 개인, 종교의 역할, 교육, 국가에 관한 사소하지만 참신한 생각은 사회의 존재와 구성원 전체의 생각, 믿음을 좌우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회의 특성과 사회의 작동 방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 진화, 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대 역사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형성하게 된 위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준다.

애덤 스미스,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찰스 다윈, 칼 막스라는 인물들로 상징되는 ‘진보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을까? 저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인물들이 처음 떠올렸던 생각들을 추적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이들의 생각이 긴 세월 추종자들, 반대 세력들을 거치고 다듬어지면서 현대인의 믿음과 현대 사회의 제도, 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더불어 이러한 아이디어가 스탈린, 히틀러와 같은 괴물들과 만나 제멋대로 전용되고 왜곡되어 노예제도나 식민주의와 같은 잔혹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이야기와, 아예 그와 같은 새로운 생각을 철저히 거부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기독교 우파의 반응들도 함께 전한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 그 생각의 역사와 처음 등장한 당시에 발생했던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알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앞에 등장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정치적 대립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인본주의 전통을 이룬 기동이자 역사를 바꾼 원동력이 된 새로운 생각들의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앞

으로 어떻게 사고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 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역사를 바꾼 아이디어들

제 1부. 현대성의 발명가들, 그 아이디어를 만든 원천

1. 애덤 스미스: 인간, 도덕, 돈의 과학
2. 칼 막스: 탁월한 이론이 낳은 비극적 결과
3. 찰스 다윈: 아이디어의 영역 속에서 벌어진 고투와 선택
4. 민주주의의 형성: 제퍼슨-해밀턴 논쟁

제 2부. 새로운 깨달음을 향한 일반 대중과 종교 분야의 반응

5. 반대 여론: 반모더니즘부터 파시즘까지
6.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과 신의 정치
7. 이슬람의 정화 노력: 서구사회의 깨우침에 반대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반응

결론: 아이디어의 힘과 인본주의의 중요성

<저자 소개>

스캇 L. 몽고메리(Scott L. Montgomery)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가르치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Does Science Need a Global Language?』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대니얼 키롯(Daniel Chirot)은 워싱턴 대학교의 러시아학, 유라시아학 교수로 『Why Not Kill Them All?』 등의 사회 변화와 동유럽, 전제정치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WORKPLACE WELLNESS THAT WORKS

가제 : 건강한 직장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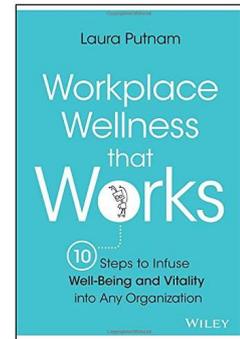
저자 : Laura Putnam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6월 1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경영



###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방법, 구성원과 조직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10단계 전략

비만과 만성 질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급증하면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사냥과 채집을 하며 몸을 많이 쓰고 건강하게 살던 인류의 조상들에게서 엿볼 수 있듯이 열심히 ‘움직이도록’ 설계된 인체의 생물학적 특성과 전혀 맞지 않는 현대 사회의 문화는 이처럼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낳았고, 이는 미국에서 시작해 이제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비만이고 또 다른 3분의 1 이상은 과체중이며 두 명 중 한 명이 최소 한 가지 만성 질환이나 해소되지 않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건강 문제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서, 비만으로 인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의료 비용과 장애 비용, 조기 사망, 생산성 감소만 무려 3,0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손해를 방지해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 일터에서 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움직임이 큰 화제를 낳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직장에서의 건강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더 많이 움직이고, 자연 식품을 더 많이 먹고,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 제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유해하고 감당하기 힘든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문화에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면 직장에서 건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또 하나의 상의하달식 사업이 되어 직원의 건강 증진은커녕 귀찮은 일만 더하는 소모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직장 내 건강에 관한 참신한 견해와 전혀 복잡할 것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직원 개개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건강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과 기존에 운영하던 자기계발 제도를 좀 더 창의적이고, 인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 노력과 통합할 수 있는 방향도 설명한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달성된 건강 증진 사례들과 최신 연구 결과, 사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사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에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문화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행동 변화를 유도할

때 늘 따르는 거센 반발과 장애를 극복하고 회사 전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확립하는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직장에서의 건강이란?

1부. 시작하라

1단계. 마음가짐의 변화 - 전문가라는 생각을 버리고 변화의 시초가 되어라

2단계. 가능성을 상상하라

3단계. 숨겨진 요소를 찾아내라

4단계. 올바른 것부터 시작하라

2부. 발전시켜라

5단계. 다 빈치에게서 배우는 변화의 방법

6단계. 몰래 실행하라

3부. 지속시켜라

7단계. 의미를 만들어라

8단계. 자극, 신호, 주의 환기 체계를 만들어라

9단계. 시작하고 반복하라

10단계.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라.

<저자 소개>

로라 푸트남(Laura Putnam)은 'Motion Infusion Inc.'의 창립자이자 CEO로 직원의 건강과 업무 효율 증대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내외 다양한 컨퍼런스와 행사에서 직원의 동기 부여와 행동 변화, 건강 증진, 창의력 향상에 관한 강연도 해 왔다.

제목 : THE XI JINPING ERA  
가제 : 시진핑 시대  
저자(편저자): James C. Hsiung  
출판사: CN Times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24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정치



###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새 시대의 해결 과제와 맞서고 있는 시진핑, 차이나 드림을 향한 그의 전략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급격한 흥망성쇠를 경험한 곳은 없다. 세계인들보다 2,000년이나 앞서 번영과 평화, 안락한 생활,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누렸던 중국인들이지만, 1840년부터 1906년까지는 외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700건이 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방대한 영토를 잃고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 일본이 서방 세력에 맞설 아시아 블록을 만들겠다고 내세운 '대동아공영권' 계획에 따라 3,5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전쟁터로 떠밀려 다치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세월, 재난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간은 20세기를 맞이한 중국이 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 행복한 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로 앞세운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의 비극적 운명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과정에는 숭한 고난과 희생이 따랐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문을 연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찾아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10조 달러의 규모로, 일본의 두 배에 달하고 미국과 근접한 수준이 되었고 외교 활동도 적극적인 형태로 변모하여 세계 초강대국의 자리에 성큼 다가섰다. 그러나 이 급격한 발전의 뒤에는 극심한 환경 문제가 따라왔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중국 대륙 전체의 사회적 모순도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겨우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 속에서 다시 심각한 해결과제들이 떠오르던 201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된 시진핑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 철학을 발전시키며 그 문제들과 하나하나 맞서고 있다. '차이나 드림'의 실현을 위해 그가 체계적으로 확립한 30개년 계획에 따라 공산당의 뿌리 깊은 부패 척결과 군대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시장을 개혁하여 중국 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세계 무대로 폭넓게 확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외교 관계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0년 계획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함께 마련한 중국의 주요 사상가들이 밝힌 견해들과 계획의 실행 과정을 분석하고, 지난 2년간 시진핑이 이룩한 성과와 리더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진핑 시대에 중국에서 진행될 변화를 예견해본다.

<목차>

머리말: 시진핑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

1장. 시진핑은 어떤 인물인가?

2장. '차이나 드림'의 실현을 위한 청사진

3장. 중국 공산당의 내부 개혁

4장. 중국의 운명을 가름한 핵심 개혁

5장. 혁신적 변화, 중국의 새로운 경제를 이끌다

6장. 일대일로 전략

7장. 막강한 권력에는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8장. 국제 사회에 관한 시진핑의 새로운 생각

9장. 중국-미국 관계에 관한 새로운 모델 구축

<저자 소개>

제임스 C. 송(James C. Hsiung)은 뉴욕 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중국과 일본의 정치를 비교 분석하고 아시아의 국제 관계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계와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관계, 중국의 외교정책, 국제법 등에 관한 저서를 18권 발표했다.

제목 : REVERSE THE SIGNS OF AGEING

가제 : 노화 시계를 되돌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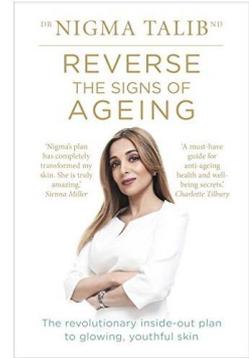
저자 : Nigma Talib

출판사: Vermilion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 몸 속의 건강과 호르몬, 면역력에 주목하여 나이와 상관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로 만드는 비법

잡티 하나 없이 매끈하게 빛나는 피부는 정말 남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만 가질 수 있을까? 자연요법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그러한 통념에 반기를 들고, 타고난 유전자가 없더라도 다른 노력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나이와 상관 없이 감탄을 자아내는 피부로 가꾸는 '인사이드 아웃' 접근법과 함께 더 젊고, 더 어려 보이는 외모로 가꿀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안이 소개된다.

저자는 실제 나이보다 노화가 빨리 시작되고, 건강과 피부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 환자들을 오랜 세월 접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소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몸 전체의 건강은 중심에 위치한 위와 장에서 시작되며, 이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피부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부를 보면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저자는 위와 장의 건강이 악화되면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들이 인체에 증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부를 공격하여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여드름이나 피지선 염증 같은 피부 염증 상태가 악화된다고 설명한다. 위와 장의 균형이 깨지면 인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고 이 역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피부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기 노화의 징후를 막기 위해 저자는 식습관, 생활방식 변화와 함께 충분한 근거로 효과가 입증된 피부관리법과 영양 보충법을 제안한다. 특히 노화가 맨 처음 시작되는 곳인 위와 장의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 먹는 음식에 주목하여 아주 단순한 식습관 변화로 피부 주름과 눈 밑의 축 쳐진 피부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한다. 더불어 인체 호르몬을 혼돈 상태로 만들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현대 사회의 삶 속에서 특히 어떤 요소가 몸과 피부의 노화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시간과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피부관리 비법과 맛있고 몸에 좋은 다양한 레시피도 소개한다.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평생 따라다니며 해결되지 않던 각종 피부 문제를 몸 속에서부터 그 원인을 차근차근 찾아서 없애는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

<목차>

머리말: 소화 기능성 노화란

1장. 아름다움은 위와 장에서 시작된다

2장. 아름다움을 위한 식생활

3장. 염증 - 몸 속에 일어난 화재

4장. 호르몬에 활기 불어넣는 법

5장. 아름다움을 위한 처방

6장.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삶

7장. 나이를 거꾸로 먹는 식생활 계획

부록.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려면 - 12주 계획

<저자 소개>

니그마 탈리브(Nigma Talib)는 자연요법과 전인적 건강 관리 전문가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침술과 중국 한방, 동종요법과 분석 검사, 영양 관리를 접목한 보완요법을 활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해 왔다.

제목 : 100 WAYS TO OVERCOME SHYNESS

가제 : 수줍음을 극복하는 100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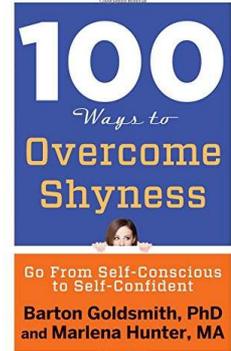
저자 : Barton Goldsmith, Marlena Hunter

출판사: Career Press

발행일: 2015년 8월 1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부끄럼 많고 수줍은 성격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 밖으로 나와 삶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

홀로 외로이 생활하는 사람은 가족, 친구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일은 인생의 축복이며, 먹을 음식이나 안전, 쉴 곳만큼이나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 요소에 속한다. 주어진 인생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도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살면서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는 성격 탓에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무엇이 그 못 견디게 부끄러운 감정을 만드는지 요인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두 저자는 수줍음 때문에 스스로 제한된 삶을 산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틀과 해결의 실마리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수줍음,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불안감, 불안 장애, 심한 경우 자폐증 때문에 늘 한 발 옆으로 물러서버리고, 혼자 속으로 조용히 절망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된다.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삶을 원하는 사람, 타인과 만나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거나 숨는 대신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100가지 해결 방안이 하나하나 소개된다. 유용한 정보와 사례 연구 결과, 사적인 대화나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상황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수줍은 감정을 극복하고 타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과 함께 사회적 관계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세세한 감정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팁을 제시한다.

사교 모임이나 회의, 파티에 참석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법, 거부당할 까봐 주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래하고 협상하는 법,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법, 다툼이 일어나거나 기타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는 법, 대하기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과 문제 없이 대화하고 일을 처리하는 법 등 움츠렸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유용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목차>

1. 거절을 받아들여라
  2. 이타적인 사랑
  3. 분노도 당신을 수줍어하게 만들 수 있다
  4. 불안
  5. 자폐증
  6. 어색한 침묵
  7. 어색한 상황
  8. 광적인 스포츠 팬이 되어라
  9. 자기 비판
  10. 가벼운 대화에 가장 어울리는 주제
  11. 수줍음과 커플의 관계
  12. 바디랭귀지
  13. 사회적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혀라
  14. 의사소통 기술을 키워라
  15. 호흡하라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바튼 골드스미스(Barton Goldsmith)는 수많은 상을 수상한 심리치료사이자 작가, 칼럼니스트로, 'Psychology Today'라는 개인 블로그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코스모폴리탄>에서 미국 최고의 치료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마를리나 헌터(Marlina Hunter)는 비엔나의 지그문트 프로이트 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임상에서 수년 간 가족치료, 부부치료사로 경력을 쌓았다.